

데스크 시각

‘산수다락’과 광주 구도심 재생



송기동 문화2부장

“오늘은 풀꽃·사계곡·공작초로 압화(押花)를 해 보겠습니다. 첫날에 종이를 한면 정도 더 바꿔 주고 나서 3~4일이면 꽃이 충분히 말라요.”

최근 찾은 광주 동구 산수동 ‘협동조합 산수다락’. 배선아(48) 장사의 말이 떨어지자 주민 8명이 하얀 종이 사이에 색색의 꽃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손으로 쓸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매주 금요일마다 갖고 있는 ‘생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꽃들은 모두 산수다락 앞 텃밭에서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것들이다.

구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에 따라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주민들의 협업으로 변모하는 광주 동구 산수동 ‘마을공동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에 첫 씨앗을 뿌린 이는 디자이너 송해경(32) 산수다락 전 대표와 예술

경영가, NGO활동가, 생태문화 기획자, 다큐멘터리 감독 등 7명이다. 이들은 2013년 8월 필요성을 인식한 후 이듬해 4월 커뮤니티와 디자인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협동조합 산수다락’을 설립했다.

공·폐가 자리에 꾸민 텃밭

우선 뿔감을 팔았던 ‘나무전 거리’와 폐선부지에 조성된 ‘푸른 길 공원’ 등 마을 내 자원을 찾아 지도를 만들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했다. ‘생태문화 공동체’를 위한 마을공간을 조성해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수다락 활동가들은 산수도서관 인근 주거지에 있는 공·폐가에 눈길을 돌렸다.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대다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때문에 마을 내 흉물로 여겨지던 384·1번지 등 3곳을 텃밭으로 탈바꿈시켰다. 철거는 구청에서 담당했지만 앞서 소유주를 찾아 취지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는 과정에 오랜 공력을 들였다고 한다.

공·폐가 부지가 텃밭으로 바뀌었으니 마을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은 당연하다.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비빔밥과

전을 만들어 주민과 나눠 먹는 ‘산수마을 양면이 골목축제’도 열었다. 도시농업과 디자인을 융합하며 동네 이미지도 밝아졌다.

산수다락은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과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생태문화 예술체험 교육 사업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압화 교육도 그중 한 부분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회원 수도 17명으로 늘었다. 산수다락은 주민들과 함께 인근 ‘나무전 거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놀이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도 재고해야

‘국가통계 포털’에서 행정구역별 주택 유형(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총 53만7762 가구 가운데 65.7%(35만3284 가구)가 아파트, 31.1%(16만7247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 10가구 중 7가구 가량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요즘 광주 곳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이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원주민들 역시 태 자리

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삶의 여장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재개발 분위기 속에서 산수동과 양림동 ‘팽귤마을’ 및 산수마을의 사례는 돋보인다. 특히 관(官)이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산수다락’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인 문화활동가와 주민들의 힘으로 쇠락하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마을 내 골목 담장에 벽화를 그린 ‘벽화마을’은 전국에 넘쳐난다. 눈요기 사업이 아닌 마을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산수동에서 시도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립 위주의 원도심 재개발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

이미 산수동에도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산수다락’이 추진하는 생태문화 마을공동체 조성고 고층 아파트 단지가 어떤 식으로 어우러질 수 있을까? 또한 구도심 활성화에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문화활동가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벌이고 있는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가 시현대에 올랐다. 생태문화예술을 토양으로 활짝 꽃을 피우는 ‘마을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인간과 기계의 전쟁



한국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이더 활용과 수많은 CPU와 GPU, 그리고 천 개의 서버로 이뤄진 컴퓨팅 체제의 도움으로 착수선택의 ‘정책망’과 유리함 판단의 ‘가치망’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국 암살했다.

이는 ‘기계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도전’에서 기계가 승리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 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사실 인간의 일에 대한 능력의 한계로 만들어진 기계는 처음부터 일 처리의 양, 속도, 그리고 정확성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대국 당시에도 수많은 지원 컴퓨터가 연결된 ‘AI와 사람’의 대결에서 AI가 앞선다고 예견됐지만, 바둑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인간이 더 우위를 보여주고 싶었고, 구글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한껏 선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구글 회장 에릭 슈밋(미국은 ‘누가 이기든 승자는 인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씩씩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미래사회는 AI의 진화된 모습이 수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은 지능을 갖춘 제품생산으로 ‘글로벌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금융·의료분야 진출과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비서 서비스에서 성

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구글을 비롯 IBM, MS,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며 장기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는 AI의 잠재적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이에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블루오션(blue ocean)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전이 격화되어 우수한 인재들을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쓸어가고 있다. 미국 IT기업은 기업인수를 AI 인력확보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자·자동차에서 AI 연구인력 확보에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중국도 라오닝성 선양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도 2년여 뒤떨어진 AI의 수준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하며 3월의 ‘알파고 쇼크’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1세기는, 20세기의 ‘자원·정보 싸움의 시대’를 벗어나 ‘인공지능과 아이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로서 AI가 영화대본, 작곡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인 예술과 창작까지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AI,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이 신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이스라엘)는 ‘3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50%가 사라질 것’이라며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지역별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생존·성장을 위해 ‘AI 연구’를 ‘성장엔진’으로 삼고 정책적 차원에서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리고 AI의 육아·농업·예술·자산관리 등 다방면의 진출로 인간의 살아질 직업에 대해 격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장차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연구하며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산업화시대에 소외받은 광주·전남은 인공지능시대에는 확실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본부와 ‘에너지 밸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과 각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기아차 광양제철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이 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노인 운전차량에 ‘경로자 운전’ 표시 합시다



양성관 동강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필자도 도대체 어떤 초보운전자라 저렇게 운전을 못하나 궁금했다. 그 차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병원 입구 방향으로 왔다. 운전석에서 백발의 7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노인이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와서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 같았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거동이 아주 불편해 보이는 90대 가량 여자 분이였다. 나는 순간 뛰어가서 함께 부족하며 도와드렸다. 물어보니 차에서 내린 분은 운전자인 70대 중반 노인의 어머니였다. 노인이라서 운전이 서툴러 병원 진입을 곧바로 하지 못하고 적어도 10분 정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고생을 하다가 병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승용차 뒤 유리창에 두 가지 형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하나는 초보운전을 알리는 표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차 안에 어린이가 동승했다는 표시이다. 필자는 오늘 오전에 병원에 진입하려는 노인의 운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도 일본처럼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노인이 운전’하고 있음을 스티커로 표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본다.

일본 승용차에는 새싹마크와 단풍마크 스티커를 볼 수 있다. 새싹마크는 화살 날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녹색으로 나뉘며, 새싹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를 표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의 전후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만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점수 1점을 부과한다. 단풍마크는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붙여야 한다. 75세 이상이면 반드시 붙여야하며 안 붙이면 벌금 2만엔이 부과된다.

만일 오늘의 상황에서 노인의 차량 뒤에 ‘노인이 운전’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면 뒤에 오는 차량들이 노인의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리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비율은 2015년에 전체 인구의 13%에서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일본(40.1%)에 이어 35.9%로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운전하는 노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노대동에 있는 노인건강타운에는 운전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승용차 주차장을 매년 넓혀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요즘은 시골에 거의 노인들만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골의 노인들도 가정마다 승용차 1대씩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처럼 운전하는 노인의 숫자가 급증하기에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에 대해 초보운전만큼 상대방 운전자들이 그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노인이 운전’하고 있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社說

문화전당과 지역 작가들 연계 방안 필요하다

광주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지역 작가들은 가슴이 설렘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향’이라는 자부심의 토대 위에 국제적인 문화 인프라가 들어서니 창작의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관 1년을 앞둔 현재, 꿈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당이 자리잡으면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타지 예술인들의 발길이 찾아지고 있지만, 정착 지역 작가들은 먼발치에서 서성거리며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광주 예술인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응답자 219명 가운데 82%는 ‘문화전당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들은 전당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과

소통 부족’(37.4%)을 첫손에 꼽았다.

‘참여 기회, 공간 대여 등 실질적인 예술인 수요에 부적합’(22.3%)과 ‘전당 측이 수동적이고 권위적이고 무관심하다’(7.3%)는 응답도 있었다. 한마디로 바깥에만 치중해 지역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는다는 불만일 것이다.

애초 문화전당에 거는 기대는 글로벌 문화와 토착 문화를 녹여 내는 융광로 역할 같은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당 측은 지역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기울여 오긴 했다. 하지만 이번 실태 조사를 보면 개관 초창기여서 그런지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따라서 전당 측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늘려 다양한 콘텐트를 구상하고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협이 수입 원료로 만든 가공품 팔아서야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도리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에 적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수산물 판매 기준을 만들었지만 제재 실적이 없는 가운데 올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협의 브랜드상품(PB상품) 89개 가운데 최소 64개 제품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한 쇠고기나 감자·전분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산 명태를 사용한 황태포나 미국산 자몽과 레몬 등을 사용한 만다린 차 등을 판매하는 회원조합도 4곳이나 됐다.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지난 2011년 211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

원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와 공영홈쇼핑에서도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농협이 50% 지분을 갖고 투자한 공영 홈쇼핑 홈페이지에서도 수입 농산물 사용 제품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바나나 또는 파인애플과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의 수요 등 소비자 요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산이 충분한 품목까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답할지 궁급하다. 농협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수입에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의 역할은 우리 농축산물을 최대한 판매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입농산물을 주된 재료로 가공한 제품까지 파는 것은 농협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파파라치는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댕댕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한다. 1960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면 사진기사가 파파라치가 등장한다. 파파라치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취재기자인 마르첼로와 함께 짝을 이뤄 선정적인 기사를 쫓아 어디든지 달려간다. 유명인이 보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셔터를 눌러댄다. 감독이 사진기사를 파파라치로 이름 지

기했다.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고발하는 ‘쓰파라치’, 휴대전화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폰파라치’, 불량식품을 적발하는 ‘식파라치’까지 파파라치가 30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포삼금 사냥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만파라치’들이 등장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절반 하면 억만의 수 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사설학원에는

‘란파라치’

여는 때보다 많은 수

강생들이 몰려들었는데 개중에는 심지어

라치의 원조가 됐다.

경찰서장 출신까지 있

파파라치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97년 8월 31일이다.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파리 센 강변 자동차로 타남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파파라치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다.

다고 한다. 신문 부고란을 보고 장례식장을 찾아가 화환과 방명록을 대조하는 란파라치까지 있었다는 보도다. 하지만 이전 파파라치들 대다수가 생계비도 못 벌었고 덜컥 신고부터 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억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 제도가 바늘도둑만 잡고 정작 소도둑은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 점도 란파라치를 바라보는 우리

우리나라에선 2001년 3월 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상륙했다. 자동차와 파파라치를 합성해 ‘카파라치’로 불리며 사생활을 깨내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공익신고자라는 긍정적 이미지

의 시각이다. 란파라치의 활개를 보면서 김영란법이 이례적재 서민들만 감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the newspaper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